

새로운 노조의 향기 싹튼다

9기 1년차 지부는 한 마디로 '역동적'이었다. 계양전기는 기존 노사관계 를 비트는 신임 대표이사, 주연테크는 3번 매각, 신한발브도 첫 매각이라는 변수에 대응해 승리 소식을 전했다. 신생사업장들은 홀로 서기 2년차 투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한 단계 실력을 높였다. 대창은 신생노조 설립투쟁을, 하이디스는 지지치 않는 정리해고 철회 투쟁을 이어왔다. 지부 전 사업장들은 2차례 지부파업과 농성 순환지지방문 등 서로에게 아낌없이 힘을 모았다. 1년차 투쟁을 마무리하고 2년차를 준비하는 사업장들이 먼저 지부 조합원들에게 소감을 전해왔다.

아쉬움, 웃음, 보람, 믿음

코리아에프티지회 김정은 구역장(인터뷰 : 안희영 정책부장)

2016년 투쟁 소감은? 7월 27일 임금협상을 마무리했는데(기본급 119,780원 인상 등), 모든 조합원이 하나되어 노력한 결과라 아쉬운 마음이 커요. 하지만 그 또한 최선의 결과라 생각하여 다음을 기약하고 마음을 편히 가졌죠. **투쟁 중 기억에 남은 일들이 있다면?** 작년 지회 창립 이후 생애 처음으로 쟁의활동을 해 봤어요. 많은 의견을 토대로 투쟁했지만, 때로 관리자나 임원들과 맞대응을 하게 되면 사실 불안하고 겁도 나더라고요. 그 모든 게 경험부족이 아니었나 싶네요.^^ 사수대 활동할 때 서로 손발이 안 맞아 어설피서 웃을 일도 많았지만 첫걸음 치고는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힘들었던 일은? 신생노조다 보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일부 조합원들이 이탈할 땐 좀 불안했던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힘들다기 보다는 우리 주권을 찾아야겠다는 신념 때문인지 보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앞으로의 다짐과 지회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개인적인 다짐이라면, 쟁의기간 중 유연비어가 난무할 때 흔들림 없이 지회를 믿고 같이 가야겠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전 조합원이 당당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으므로 지회장님과 간부들께서는 지금처럼 선봉에 서서 흔들림없이 전조합원들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한 투쟁! 성장하는 노동조합!

말레동현화성지회 이준희 교선부장

2016년은 금속노조 전환 이후 단체협약을 체결한 첫 해입니다. 올 여름 뜨거웠던 파업투쟁을 통해 말레동현은 **1) 조합활동시간 확보**(전임,비전임)로 실천하는 간부양성과 노동조합의 기틀을 단단히 할 수 있게 되었고, **2) 고용 보장 강화**를 위한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제한, 임금피크제의 임금삭감 구간 철회 등 고용안정 장치 강화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을 보장받아** 골병들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 해는 지회 스스로 파업프로그램을 만들어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표현하고 즐겁게 투쟁하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노동자의 단결된 힘 만큼 전진할 수 있음을 배운 소중한 한 해였습니다. 앞으로 전 조합원이 하나 되어 함께 투쟁한 결과 쟁취한 단협을 잘 지켜나가고 현장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단협 알리기, 노동자 권리찾기, 전조합원 단합대회, 입단협 평가 수련회 등 일상투쟁 역시 활발하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찌나 조합활동에 목이 말랐던지, 합의한 지 1주일 만에 간부활동시간 20시간을 다 써버렸어요^^

파업이 이런 거였어? 계양전기지회 차 기드온 조합원(인터뷰 : 조성현 교선1부장)

저는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는 계양전기가 처음이라 그 전까지만 해도 파업이라 하면 항상 경찰과 대치하고 투쟁띠를 머리에 두르고 하는 엄격하고 무거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파업을 해보면서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7월에 서울상경 투쟁을 할 땐, 여러 노동조합이 모여서 더 엄격한 분위기가 될 줄 알았는데 다같이 힘을 내서 즐겁게 투쟁하자는 분위기에다 초청가수랑 다양한 무대들을 보면서 신기했어요. 대창에 파업하고 갔을 때도 서로 응원하고 힘을 실어주고, 웃으면서 즐겁게 하자는 분위기에 힘이 났습니다. 회사 내에서 파업할 땐 다양한 파업프로그램을 하고 조합원들의 단합력을 올리고, 파업가도 배웠던 게 기억나네요. 파업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고 노동조합의 새로운 면을 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작은 노조의 반전 주연테크지회는 지난 1년 사이 경영진이 세 번 바뀌어서 1년 내내 교섭을 하고, 특단협만 두차례 맺었다. 사무직 조합원들의 가입으로 11명 작은 노조의 간부들이 주2회 상암동 본사를 왔다갔다 하느라 정말 힘들었다. 하지만 작은 지회가 전체 동료들의 고용을 지키고 노동권을 높였다. '작아도 노조가 있으니까 누구도 함부로 못 한다'는 것, 노동조합을 두려운 것으로 생각했던 동료들의 시선도 많이 변했다는 게 큰 보람이다.

담장 넘으니 가능성 더 커져 신한발브분회는 올 해 회사가 매각되고 그 과정에서 임금이 체불되기도 했다. 집행부도 조합원도 처음 겪는 상황이었다. 지분을 인수한다는 알티캐스트 서초동 본사에 가서 간부들부터 투쟁을 시작했다. 9월엔 현장에 천막도 쳤다. 처음에는 매각이라는 큰 변수 앞에 고용과 단협의 후퇴를 막기 위해 싸웠는데 담장을 넘는 투쟁을 하고 조합원들과 함께 싸우다 보니 더 할 수 있는 게 보였고, 단협 뿐 아니라 임금인상도 쟁취했다.

핫한투쟁하 이디스투쟁

하이디스지회 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주점

2016. 10. 7(금) 16:00~22:00
수원역 인근 엘로이빌딩 3층 동북웨딩홀

힘 주고 힘 받자!